뮤지컬로 만나는 만해 스님

만해 스님 추모 뮤지컬 '심우'
심우장 6월 16일~29일, 7회 공연

극단 '더 늠' 제작 2014년 초연
일제강점기 심우장의 만해 스님 일화
만해 스님 74주기 추모다례재 진행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했던 만해 스님이 함께 했던 친구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노래한다.

만해 스님을 추모하는 뮤지컬 '심우'가 공연된다. 서울 성북문화원은 창작 뮤지컬 '심우(작 · 연출 차지성, 음악감독 · 이보람)'를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성북구 심우장에서 총 7차례 공연한다.

만해 스님의 입적 74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연은 성북문화원이 만해 스님이 심우장에 머물던 시절의 일화를 발굴해 기획했으며, 극단 '더 늠'이 제작해 2014년 초연했다. 전 공연 무료로 공연되는 뮤지컬 '심우'는 1937년 당시, 만해 스님이 옥사한 독립운동가 일송 김동삼(1878~1937) 선생의 장례를 심우장에서 치르게 된 일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37년 봄, 신흥강습소 설립에 참여하고, 서로군정서의 대표를 역임한 독립운동가 일송 김동삼 선생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하고 숭고한 일이었으나 일본 제국주의의 눈치를 보느라 그 누구도 일송의 거룩한 생을 칭송하지 못했고, 주검조차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때, 일송의 주검을 거두고 장례를 치른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만해 스님이다. 만해 스님은 친구인 일송의 주검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심우장으로 옮겨 5일장을 치른다.

"오늘이 참으로 닷새째인가? 몇 명이나 다녀갔는가?"

"스무 분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5일 동안 장례를 치렀는데, 스물이라.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그 마지막 길이 스물이라…. 내가 죽어서 자네 얼굴을 어떻게 볼까."

일송 선생의 빈소를 다녀간 이는 고작 20여 명 뿐이었다. 어쩔 수 없는 민족의 슬픔 앞에서 만해 스님은 절규한다.

"한 나라의 큰 별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아픈 현실 앞에서 절규하며 절망하는 아버지를 딸 한영숙 여사가 따뜻하게 위로한다.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심우장이지만 백 년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올 것"이라고. 지금은 볼 수 없는 만해 스님에게, 또 만해 스님을 기억해야 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말한다. 30분짜리 짧은 뮤지컬 '심우'는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라는 힘들었던 시기에 심우장이라는 역사적 장소에서 5일 동안 일어난 역사를 또박또박 적고 있다.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심우장을 찾고, 잊어서는 안 되는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해 달라고.

"님이여, 사랑하는 나의 님이여…"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했던 만해 스님이 함께 했던 친구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노래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

"그대들이라면, 이 시대의 그대들이라면 나를 찾아올 수 있겠는가?"

뮤지컬 '심우'는 거창하게 민족을 이야기하고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저 지나간 시절의 아픈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다. 그 이야기 속에서 많은 것들을 듣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심우장이라는 작지만 큰 마당에서 열리는, 짧은 공연이지만 큰 뮤지컬 '심우'다.

29일 공연은 오후 4시에 진행되며, 30일은 오전 11시와 1시 총 2회 공연한다. 29일에는 만해 스님의 74주기를 맞아 추모다례재가 진행되고, 오후 4시부터는 '추모예술제'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 정기 교체

6월 19일부터, '무병장수', '극락왕생' 주제 개편
불교회화 · 경전 · 불상 등 19건 20점 새 모습
'현왕' 등 북한 지역 불교회화도 선보여


'아미타불을 모신 작은 집'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6월 19일부터 상설전시관2층 불교회화실의 전시품을 교체하여 전시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전시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의 바람을 담은 불교회화와 경전, 불상 등이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미타불을 모신 작은 집'이다. 나무로 제작된 불감 안에 홍색 비단을 덧대어 선묘로 아미타삼존불을 그린 독특한 형식을 하고 있다. 작고 가벼워 개인적인 공간에 봉안 되거나 이동할 때 들고 다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감에는 불감이 늘 사람들 가까운 곳에 있었던 흔적들이 곳곳에서 남아 있다. 문을 열고 닫는 문고리 부분은 정성스럽게 다듬은 금속 꽃장식으로 아름답게 장엄되어있다. 문을 열면 피안의 세계,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펼쳐질 듯하다. 극락정토는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죽어서 가장 가고자 염원했던 곳이다. 아미타부처님의 중생을 생각하는 미소와 손짓을 볼 수 있다.

아미타부처님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면, 무병장수에 대한 기원은 약사부처님이다. 약사불이 다스리는 유리광정토는 질병의 고통이 없는 세계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약사정토에서 설법하는 약사불'은 가르침을 설하는 약사불과 약사불의 말씀을 듣는 보살, 제자, 사천왕이 표현되어 있다. 약사불은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답게 약함을 들고 있다. 전시에서는 약사신앙의 근본이 되는 경전도 함께 선보인다. '약사신앙의 근본이 되는 경전'은 약사불이 유리광정토의 교주가 되어 12가지 서원을 세우고,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이다.

새롭게 교체되는 이번 전시에는 함경도 함흥 성불사에 봉안했던 '제석과 여러 신', '현왕' 등 북한 지역의 불화도 선보인다. '현왕'은 보존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제석과 여러 신'과 같은 해, 같은 곳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점의 불화가 함께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접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의 불화를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는 그 밖에도 장수를 기원하며 조성한 '불법을 수호하는 여러 신', 죽은 남편의 천도를 위해 발원한 고려시대의 〈묘법연화경 사경〉, 명부전에 봉안되었던 동자상 등 총 19건 20점의 불화를 새롭게 선보인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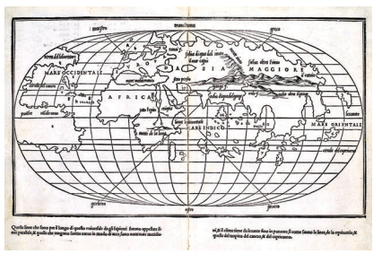
'동해, 독도지도 108선-정각 스님 소장 귀중지도' 특별전

아람누리(갤러리누리 제1전시장)
6월 27일(수)~7월 1일(일)

동해와 독도 및 한반도 초기 지형과 관련된 고지도를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그 동안 독도와 동해 관련 지도를 수집해온 정각 스님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고양시 아람누리(갤러리누리 제1전시장)에서 자신이 10여 년간 수집해온 독도와 동해, 한반도 초기 지형과 관련된 200여 점의 고지도 중에서 108점을 전시한다.

108점의 지도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는 서양 고지도에 한반도 지형이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5점의 지도를 통해, 한반도 지형의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두 번째 〈동해〉에서는 서양지도 중 동해(Mare Orientale) 표기가 처음 등장하는 1528년 보르도네(B. Bordone) 지도와 최초로 한국해(Mare di Corai)가 기록된 1646년 더들리(S. R. Dudley) 지도로부터 1893년 'Gulf of Corea' 표기 지도에 이르기까지, '동해'가 표기된 53점의 서양 지도를 통해 서양 지도에서 '동해' 명칭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독도'가 처음 표기된 당빌의 중국전도.

세 번째 〈독도〉에서는 서양지도 중에서 '독도'가 처음 표기된 1732년 당빌(D' Anville)의 중국전도를 비롯해 울릉도를 처음 발견해 표기한 1797년의 라 페라즈(La Perouse)의 항해도, 독도가 명기된 머리(M. F. Maury) 및 페리(C. Perry)의 항해도 등을 선보인다. 그 밖에도 1895년 포지오(Pogio. M)의 조선지도와 1898년 프랑스 군지도제작소에서 간행한 강릉 군사지도 등 독도가 한반도 영토에 귀속된 것임을 알려주는 12점의 지도를 보여준다.

네 번째 〈일본지도〉에서는 1785년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간행한 〈목판본 삼국접양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도에는 독도가 '조선의 소유'라고 인쇄되어 있다. 그 밖에도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1838년 간행의 한국전도, 1844년의 '신제여지전도', 1853년의 '신정지구만국방도' 등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일본 지도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도들이 전시된다.

다섯 번째 〈한국지도〉에서는 1611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독도' 표기 지도로부터 1899년 학부(學部) 편집국에서 간행한 〈대한지지(大韓地誌)〉의 부록 〈대한전도(大韓全圖)〉에 이르기까지 독도 및 동해 관련 '한국지도'을 모았다.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